

		<b>보 도 자 료</b>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	
		배포일자	2021년 2월 8일(월) 총 5매		
담당 부서	도서관정책과	담당자	• 도서관기획팀장 온윤희 ☎458-7211 • 담당자 김찬기 ☎458-7213		
<b>사 진</b>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<b>참고자료</b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<b>보 도 시 점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“책 읽는 일상, 책 읽는 기쁨 나눠요”**

**인천시, 공공도서관 3곳 개관 등 도서관 활성화 나서**

- 올해 약 68억 투입, 공공도서관 3곳(남동구, 서구, 강화) 신규 개관 및 리모델링 추진 -

- 2024년 준공 목표, 검단신도시에 장서보관을 위한 ‘(가칭)인천도서관’ 건립 추진 -

-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설비 및 장서 확충,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도서관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부족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,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·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.
- 시는 정부의 ‘생활SOC복합화 사업’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올해 약 68억(국비 46억·시비 22억)원을 투입해, 공공도서관 7개소와 작은도서관 5개소 건립 및 리모델링을 추진한다.
- 우선 지역별 균형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내 개관을 목표로 논현도서관(남동구 논현동), 가재울 꿈 도서관(서구 가좌동), 지혜의 숲 도서관(강화군 선원면) 신규 설립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 3개 도서관이 개관하면 인천시 공공도서관은 64개로 늘어난다.

- 기존 도서관 중 시립 주안도서관, 연수어린이도서관, 미추홀구 쑥골 도서관 3곳은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새단장 중이다.
- 보다 많은 시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에 마련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도서관 설비 및 장서 확충, 특화프로그램, 자원활동가 실비 지원 사업 등을 펼친다.
- 인천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은 현재 368개로 주민행복센터, 아파트단지의 공동 공간 등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생활 속 독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.
- 시는 시립도서관 개관 100주년 기념 및 인천시 관내 도서관 장서보관을 위한 보존도서관(가칭 인천도서관)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.
-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(14호 근린공원) 지하2층~지상3층의 규모로 세워질 (가칭)인천도서관은 기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인천 내 자료의 공동 보존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.
- 김호석 시 도서관정책과장은 “독서는 주민들의 일상을 일깨우고 세상을 넓히는 원동력이다. 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도서관을 확충해 시민 삶이 더 행복하고 풍성해지도록 하겠다”며 “올해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도서

대출 서비스, 온라인 독서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” 이라고 말했다.

<사진 별첨> 2021년 신규 설립 공공도서관 조감도

< ‘가재울 꿈 도서관’ 조감도(서구 가좌동)>



< ‘논현도서관’ 조감도(남동구 논현동)>



< ‘지혜의 숲 도서관’ 조감도(강화군 선원면)>

